

## OD1) 수성못유원지 장소성 인식

한재경·엄봉훈<sup>1)</sup>

대구가톨릭대학교 환경·조경학과, <sup>1)</sup>대구가톨릭대학교 조경학과

### 1. 서론

수성못유원지는 대구시민의 여가문화 공간으로 연간 800만 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다. 수성못은 1927년 농업용 저수지로 축조된 이후 1967년 수성못과 그 일대를 유원지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기반시설 부족과 수질오염 등으로 유원지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였다. 2010년 이후 생태복원 사업으로 수질을 개선하고, 산책데크 설치, 음악분수 등을 설치하여 대구시민의 도심 휴식처로 자리 잡았다. 수성못유원지는 과거와 비교하여 유원지와 주변 지역의 모습과 역할이 많이 변화하였다. 장소성은 지역만의 특성을 형성시켜 지역경제 발전과 활성화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다(Lee and Choi, 2011). 장소성 형성 요인을 밝혀내는 것이 장소마케팅의 핵심이 되며 이를 바탕으로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성못유원지 생태복원 사업 이후 방문객의 만족도와 장소성 형성 요인간의 상호 영향관계를 분석하여 장소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자료 및 방법

조사는 수성못유원지의 방문객을 대상으로 2018년 4월 11일부터 4월 16일까지 총 6일간 진행하였다. 총 3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불성실 응답을 제외한 255부를 분석하였다. 측정항목은 만족도 4문항, 장소애착 4문항, 장소기능 4문항, 행동의도 3문항으로 총 15문항이다. 자료 분석은 PC 통계 프로그램인 SPSS 22.0과 AMOS 22.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요인분석,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판단에 사용한 주요 지표는 CFI, RMSEA이며 CFI는 0.90이상, RMSEA는 0.05 이하일 때 모형이 자료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부트스트랩 10,000회를 하였으며, 간접효과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간접효과가 유의하다고 판단하였다.

### 3. 결과 및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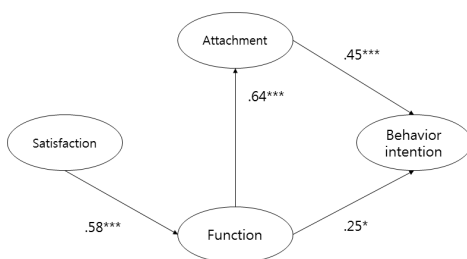


Fig. 1. SEM of Suseong lake.

본 연구에서는 만족도, 장소애착, 장소기능이 행동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만족도는 장소기능과 장소애착을 매개로 행동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을 모형으로 나타내면 만족도와 행동의도의 관계에 장소기능과 장소애착을 매개하는 모형을 제안하였다. 구조모형을 분석한 결과 Fig. 1과 같이 만족도 → 장소기능( $\beta=0.577, p<0.001, H2$ ), 장소애착 → 행동의도( $\beta=0.450, p<0.001, H3$ ), 장소기능 → 행동의도( $\beta=0.247, p<0.05, H4$ ), 장소기능 → 장소애착( $\beta=0.637, p<0.001, H6$ )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만족도 → 장소애착(H1), 만족도 → 행동

의도(H5)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팬텀변인을 사용하여 부트스트랩을 실시한 결과, 만족도 → 장소기능 → 장소애착 → 행동의도의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음으로 만족도와 행동의도 간의 관계에 장소기능과 장소애착의 이중매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H5의 만족도와 행동의도 간의 직접적인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장소기능과 장소애착을 매개한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가설을 입증하였다. 수성못유원지는 장소성에는 장소기능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 4. 참고문헌

Lee, N. H., Choi, C. G., 2011, Causality of placeness formation by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 The Case of Hongik University area in Korea, J. Kor. Plan. Ass., 46, 19-36.